

이통3사, 영업익 1조에도 허리띠 쥘다... 설비투자 절감 본격화

5G 가입자 감소·통신비 압박 등에 4분기까지 확대한 마케팅비용 ↓
신사업 투자 늘리고 AI·B2B 전환

이동통신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주력 분야인 통신 사업 위축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압박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마케팅비와 설비투자비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3사 합산 영업 이익 추정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1조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5014억원, KT 5039억원, LG유플러스 2502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전년 동기 대비 1.34%, 3.6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3.84% 감소했다. KT가 SK텔레콤을 앞지르게 된다.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1조원을 밑돌다 다시 회복했다. 이들은 2022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1조원을 돌파했지만 4분기 7582억원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다 1분기 만에 다시 1조원대를 회복한 것.

다만, 주요 수입원인 통신사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내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로 인해 이익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G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6.9% 증가한 3280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 /뉴스시

5G 가입자 증가율 34.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5G 일반 요금제 구간에 월 3만9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와 월 4만5000원·8GB의 '컴팩트플러스'를 추가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와 월 5만9000원·24GB의 '5G 베이직+'를 신선했다. KT도 앞서 월 3만7000원·4GB와 월 5만원·21GB, 월 5만8000원·21GB 3종의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수익을 가능할 핵심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1분기 SK텔레콤의 ARPU를 지난해 1분기 대비 1.7% 감소한 2만9600원으로, LG유플러스의 ARPU는 8% 감소한 2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

간 KT의 ARPU는 전년 대비 1.6% 오른 3만4300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통신3사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수익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예상 통신3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9600억원으로 전 분기(1조967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확대됐던 마케팅비용을 축소할 것이다.

이밖에도 통신3사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투자를 확대한 것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탈통신을 선언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통한 B2B 사업으로 전환을 공표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무선사업부문의 수익 감소 속에서도 B2B는 계속 성장세"라며 "여기에 마케팅비나 설비투자비용(CAPEX)을 줄이면서 이익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소상공인에 SOHO 솔루션 지원

DX 컨설턴트로 차별적 고객 경험 제공

LG유플러스가 자사 SOHO(소규모 자영업) 솔루션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를 육성해 차별적 고객 경험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김유진아카데미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유진아카데미는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영업계 최초의 매니지먼트 그룹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사 SOHO 솔루션을 도맡아 판매하는 파트너사의 임직원들을 매장 운영 전문 DX 컨설턴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김유진아카데미는 매장운영 노하우가 담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김유진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DX 컨설턴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및



LG유플러스 안형균 기업영업2그룹장(오른쪽)과 (왼쪽) 김유진 아카데미 김유진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중형 SOHO 솔루션을 추천해 차별화된 DX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DX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김유진 유진아카데미 대표는 1994년부터 음식 전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MBC 프로덕션 예능국 PD였다. 2016년 자영업 전략 사관학교 김유진 아카데미를 오픈한 이후 누적 3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타, LLM '라마3' 오픈소스 공개

라마2 대비 코드량 4배 더 많아

메타가 19일(현지시각)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3(Llama 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3는 사전훈련과 미세조정을 마친 80억 개(8B·비트)와 700억 개(70B) 매개변수 모델 두 가지로 공개됐다. 두 모델은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MMLU)'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 표준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으며 추론과 코드 생성, 지시 수행을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

라마3의 성능 향상은 모델의 사전 훈련과 사후 훈련 과정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사전 훈련을 위해 데이

터셋의 양을 늘리고, 필터링 과정을 거쳐 고품질 데이터만을 선별했다. 라마3는 라마2 대비 7배 많은 15조 이상의 토큰으로 훈련돼 라마2 대비 7배 이상 많으며 코드량은 4배 더 많다.

오픈소스인 라마3 모델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시 미세조정된 모델은 전문가와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레드팀 훈련을 통해 부적절한 답변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라마 가드2(Llama Guard 2)', '코드 실드(CodeShield)',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2(CyberSec Eval 2)'와 같은 안전 장치와 더불어 새로운 안전 도구들도 도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갤S24 대여하고 이색사진 체험 하세요”

삼성전자 '갤 스튜디오 포토' 에버랜드서 내달 26일까지 체험
생성형 편집으로 이색 사진 만들어
갤 Z 폴드5·플립5 등 시리즈 전시

삼성전자가 에버랜드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갤ml릭시 S24' 시리즈를 빌려 AI(인공지능)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의 '갤럭시 AI' 기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Photo(포토)'를 다음달 26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는 이색적인 사진 체험부터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까지 102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테마파크 콘셉트로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우산, 꽃, 비누방울 등의 소품과 함께 갤럭시 S24로 사진을 촬영하고,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을 활용해 신비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포시즌스 가든'을 포함한 다양한 에버랜드 사진 명소에서는 AI 전문 사진 작가가 갤럭시 S24로 사진을 촬영해준



에버랜드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 Photo' 전경. /삼성전자

다. 이를 생성형 편집을 활용해 이색적인 사진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갤럭시 포토 박스가 설치된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나비와 꽃을 쉽고 빠르게 검색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대여해 에버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갤럭시 AI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에버랜드 내 포토 스팟에서 인증 시 삼성월렛으로 모바일 쿠폰도 증정한다.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원(One) UI 6.1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갤럭시 Z 폴드5·플립5' '갤

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탭S9 시리즈' 등을 전시한다.

삼성월렛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삼성월렛에 에버랜드 티켓, 멤버십, 모바일 신분증 등을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낵 교환권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는 봄 시즌을 맞아 에버랜드를 찾은 1020세대 고객들이 '갤럭시 AI'를 더욱 자유롭게 흥미롭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에버랜드 전역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 스팟에서 갤럭시 AI 기반의 카메라로 나만의 이색적인 사진 작품을 남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한국반도체연구조합, SC24 참가 기업 모집

올해 11월 18일~21일까지 개최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5월 3일까지 오는 11월 미국 이틀란타에서 열리는 SC24(SuperComputing24) 참가기업 신청을 받는다.

SC24는 1988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제 규모의 슈퍼컴퓨터 박람회다. 메인 행사인 기술 프로그램 참여자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월드콘그레스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등 345개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을 열고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받는다.

국내 시스템반도체/AI 반도체 관련 기업 6곳을 선발하며 6개사 이상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참가비용은 업체당 3500만원 내외로 조합은 부스면적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5월 3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기업 확정은 5월 중, 세부 준비사항은 6월 전 각각 안내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